

## 통섭, 우물을 깊게 파기 위해 우선 넓게 파려는 노력

《지식의 통섭》

최재천 · 주일우 엮음 | 이음 | 308쪽 | 값 14,500원

통섭, 아직 우리에게 낯선 개념이다. 에드워드 월슨의 명저 《통섭(지식의 대통합)(Consilience)을 국내에 소개하면서 고안된 '통섭'은 인간의 지식이 본질적으로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전망을 바탕으로,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의 연구자들이 서로 협력해야 함을 강조하는 말이다. 즉 나무는 보지만 숲은 보지 못하는 시대를 사는 이들에게 거시적 안목을 제시하려는 일종의 모험과도 같은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저자들은 이 책에서 '지금 여기'의 상황에서 지식의 경계를 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에서부터 프란시스 베이컨은 물론 박지원, 홍대용, 최한기 등 동서고금에서 통섭을 자신의 학문 세계의 빛으로 삼았던 이들의 학문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책을 엮은 최재천 통섭위원장(이화여대 에코과학부 교수)은 “통섭은 이제 이 시대가 껴안아야 할 가장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면서 “통섭이란 우물을 깊게 파기 위해 우선 넓게 파려는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통섭원 총서의 시작을 알리는 이 책은, 뒤이어 나올 책들에 대한 기대를 높이기에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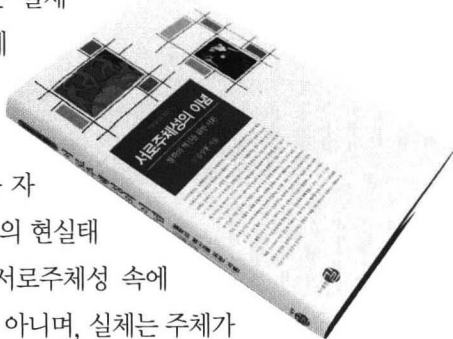


## 철학의 혁신을 위한 서론

《서로주체성의 이념》

김상봉 지음 | 길 | 323쪽 | 값 20,000원

“서로주체성은 실제화되지 않는 주체성이다. 왜냐하면 서로주체성에서 만남의 활동 자체가 바로 주체성의 현실태이기 때문이다. 서로주체성 속에서 주체는 실체가 아니며, 실체는 주체가 아니다. 고립된 개별자로서의 나는 그 자체로



서는 결코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때 나는 그냥 실존자요 실체일 뿐이다.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은 오직 내가 너와 함께 우리가 될 때이다.”

‘주체성’이라는 개념은 그 스스로는 명확하다. 그러나 김상봉 교수가 말하는 서로주체성의 개념은 김 교수 스스로의 표현처럼 실체화되지 않은 주체성이다. 그렇다고 실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서로주체성은 ‘만남’이라는, 나와 너의 동시적 사건을 모티브로 시작한다. 그것은 결국 김상봉 교수가 줄기차게 주장하는 열린 사회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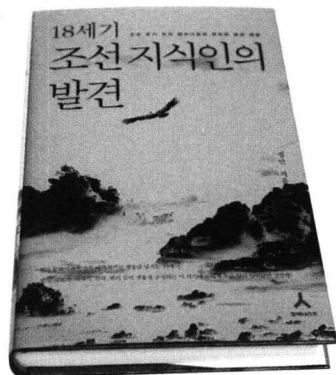
김 교수는 철학에서도 만남을 매개로 한 서로주체성의 도입을 시급하게 주장한다. 민중의 고통과 꿈을 등진 철학은 역사를 등진 철학이며, 역사를 등진 철학은 뿌리내릴 토양이 없는 철학이니, 지금껏 이 나라의 강단 철학이란 대개 남의 땅에서 꺾어와 제 방의 꽃병에 꽂아 놓은 꽃처럼 죽은 철학이기 때문이다. 이 땅의 철학함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 저자이기에, ‘철학의 혁신을 위한 서론’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과 그 후속 작업들이 기대감을 갖게 한다.

## 조선 후기 지식 패러다임의 변화와 문화 변동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발견》

정민 지음 | 휴머니스트 | 448쪽 | 값 23,000원

정민 교수는 18세기를 “한국 문화사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시기”로 규정한다. 그 이유는 지식과 글쓰기, 자의식, 감각, 취미 등이 새롭게 구성되는 시기였기 때문이다. ‘조선 후기 지식 패러다임의 변화와 문화 변동’이라



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책은, 《초월의 상상》 이후 처음 선보이는 연구서이다. 그간 《미쳐야 미친다》 《책읽는 소리》 《다산선생 지식경영법》 등 대중과 소통하는 작품을 꾸준히 펴내온 저자이기에 연구자 본연으로 돌아간 이번 책의 의미는 남다르다.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자의식과 세계 인식도 흥미롭지만 이 시기 지식인들의 지적 편력과 취미 생활, 지식 경영법 등 조선조 르네상스 시대의 지적 경향을 만나는 것도 남다른 의미를 던져준다. **한글서체**

장동석 기자

## 미국은 파탄국가

《츨스키, 실패한 국가 미국을 말하다》

노엄 츨스키 지음 | 강주현 옮김 | 황금나침반 | 528쪽 | 값 14,500원

이 책은 미국을 과감히 파탄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세계의 양심, 세계의 지성인으로 일컬어지는 노엄 츨스키의 미국의 진실에 관한 최신 보고서이다. 저자는 '미 제국주의 고발 프로젝트'로 명명된 이 책은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이 유엔 총회 석상에서 '미국인에게 일독을 권한다'고 해 단숨에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한 화제작 《패권인가 생존인가》의 후속편이다.

저자는 첫머리에 비판의 대상을 미국이 아니라 정부로 한정하고 있다. "미국 국민은 정부의 뜻에 동의하지 않는다. 국민 여론과 정부 정책의 첨예한 분열이 자행되는 것을 봐도 미국을 파탄국가로 규정할 수 있는 한 근거"라며 미국이 이라크 같은 국가들을 겨냥한 발언의 관세를 뒤집어 정작 미국이 파탄국가들과 어떤 공통점을 갖는가를 증명해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500쪽을 모두 비판의 목소리로만 담겨 있지 않다. 이 책이 일관되게 깔린 시선은 어떤 극단적인 혁명적 선택이 아니라 단순한 보편성의 원칙이다.



## 게르마니아 숲에서 아테네 아크로폴리스까지

《로마제국을 가다》

최정동 지음 | 한길사 | 542쪽 | 값 18,000원

이 사람. 길 떠나기를 무척 좋아하는 사람이다. 20년 동안 신문사 기자 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구석구석을 구경했다며, 놀러왔는 것보다 떠도는 게 편하단다.

1996년 초가을, 이탈리아 로마 도심의 포로 로마노에서 《로마인 이야기》의 저자인 시오노 나나미 여사를 만나게 되면서, 10년 동안 로마라는 학교의 학생이 되는 계기가 됐다. 포로 로마노의 만남 이후 저자의 모든 여행은 로마제국에 집중됐다. 이 책은 2002년에 본토는 버스를 타고, 에게 해의 섬들은 페리와 비행기를 이용해 다녀온 그리스 여행기. 2004년 봄에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을 자동차를 몰로 한 바퀴 돌았던 여정. 2005년 가을에 기차노선을 이용해 다녀온 독일, 프랑스, 영국 여행기로 로마제국의 모든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엿볼 수 있다.

준비가 끝났을 때 여행을 가라는 저자의 조언도 새길만하

다. 그가 로마로 출발하기 전에 한 일은 우선 책 읽기. "역사의 현장은 지식 없이 보면 허허벌판이나 돌무더기일 뿐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정직하게 반영되는 곳이지요. 우선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은 현장을 보고 싶은 열망이 넘칠 때 떠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여행은 아테네의 조그만 호텔 테라스에서 끝난다. 지중해의 푸른 밤하늘 아래 하얗게 빛나는 파르테논 신전이 보인다. 그곳.



## 1960년대부터 2000년대 문학이 그려낸 서울의 모습들

《문학 속의 서울》

김재관 · 장두식 지음 | 생각의나무 | 284쪽 | 값 15,000원

《문학 속의 서울》은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서울의 통시적 변화를 문학이라는 눈으로 살펴본 책이다. 서울의 변천을 고찰하면서 동시에 한국의 근대화와 궤를 같이하며 성장해온 한국 문학의 흐름을 되짚어보고 있다. 1960년대 경제 개발 당시의 시대 상황을 반영한 작품에서부터,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최근의 놀랄만한 성장의 변화된 모습에 이르기까지, 한국 대표문학 작품 50여 편이 스케치한 서울의 모습을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는 재미가 쏠쏠하다. 1960년대 이후의 격변하는 시대 정황을 그려낸 김승옥의 《서울, 1964년 겨울》과 신동엽의 《종로 오가》, 김광섭의 《성북동 비둘기》에서 경제개발 바람에 휩싸이는 서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중산층의 삶을 다룬 최인호의 소설 《미개인》과 《타인의 방》에서 아파트 문화를 표현해 내는 많은 작품도 읽을 수 있다. 조선작의 《영자의 전성시대》나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같은 작품들에서는 서울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애환을 느끼게 한다. 근대화돼 가는 서울의 모습을 흑백 자료사진까지 동원해 서울 사람들의 낭만과 욕망, 삶의 애환, 빛과 그림자를 담아냈다. **한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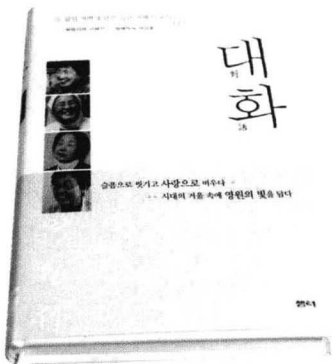
정윤희 기자

## 진솔한 대화 속에 깃든 따뜻한 위로와 삶의 지혜

《대화》

박완서 외 | 샘터 | 284쪽 | 값 11,000원

소설과 박완서 씨와 시인 이해인 수녀의 인연은 같은 종교 안에서 더욱 끈끈해졌다. 문학의 테두리 안에서 삶을 논하고 타인과 소통한다는 점도 두 사람이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소중한 이유다. 그래서 이들의 대화는 서로를 탐색하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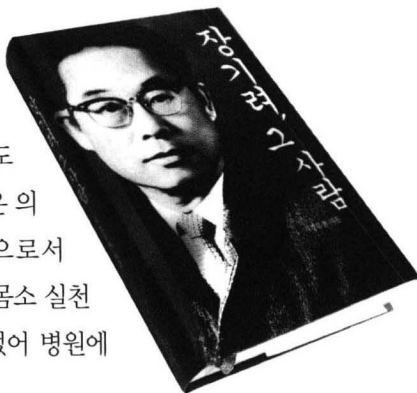
나 스스로를 방어하지 않는다. 털어놓기 힘든 개인사도 스스로 없이 주고받으며 사랑과 나이들, 죽음에 대한 속내를 가감 없이 쏟아낸다. 소설과 시에서 느꼈던 작가들의 이미지와는 또 다른, 진지하지만 위트 넘치는 중견 문학가이자 중년 여성의 대화를 엿들 수 있다. 한편 화가 방혜자 씨와 역사학자 이인호 씨의 대화에는 곡절 많은 시대를 치열하게 살아 온 여성의 이야기가 앞의 두 작가와는 다른 분위기로 담겨있다. 여성이기에 겪어야 했던 불평등한 사회적 위치에서도 이에 순응하기 보다는 한 인간으로서 세계를 무대로 꿈과 이상을 품고 인생을 개척했던 개인사와 더불어 역사, 예술, 교육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권면을 담았다.

## 나눔과 섬김, 아름다운 의술 펼친 성산 장기려 박사 평전

《장기려, 그 사람》

지강유철 지음 | 흥성사 | 576쪽 | 값 20,000원

‘무소유 삶’을 실천한 성산 장기려 선생의 평전. ‘한국의 슈바이처’라고도 불리는 장기려 선생은 의사로서 또 종교인으로서 ‘더불어 사는 삶’을 몸소 실천한 인물이다. 돈이 없어 병원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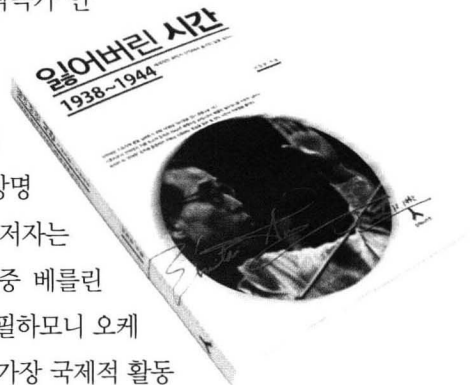
오지 못하는 환자를 위해 자비를 털어 치료 받게 하고, 입원비가 없어 야반도주하려는 사람을 도와주는 등 의술을 펼치며 사랑을 실천했을 뿐 아니라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복에 두고 온 아내에 대한 신의를 지켰다. 저자 지강유철은 선생의 일기, 노트, 잡지 기고 글을 참고하면서 그의 삶을 곁에서 지켜본 지인들의 생생한 증언을 토대로 장기려 선생의 업적과 평가를 담았다. 그러나 업적이나 긍정적인 인간됨에 치우치지 않으려는 시도가 엿보인다. 저자는 “이면과 표면의 경계를 허문” 인물로 선생을 평가하고 의사라는 직업의 소명을 ‘나눔과 봉사’로 이해한 선생의 삶이 그가 지내온 시대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풀어낸다. 실수와 상처, 고뇌 등 인간 장기려의 삶의 모습이 고루 담겨 있다.

## 음악가 안익태의 감춰진 세월 좇은 연구서

《잃어버린 시간 1938~1944》

이경분 지음 | 휴머니스트 | 268쪽 | 값 13,000원

‘애국가’의 작곡가 안익태의 감춰진 6년 세월을 추적했다. 독일에 서 나치시기의 망명 음악을 연구한 저자는 안익태의 생애 중 베를린 필하모니, 런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지휘 등 가장 국제적 활동이 왕성했던 1938년도부터 1944년도



까지의 흔적이 전무하다는 사실에서 그에 대한 새로운 조명의 필요성을 찾았다. 세계적인 한국인 지휘자라는 국제적 명성에 안익태에 대한 평가는 풍족하지 않다. 책은 안익태의 독일 자료를 발굴하기까지의 여정, 실제 안익태의 음악활동과 일제 침략시기 한 사람의 음악가로서 부딪쳐야 했던 음악계 입지 성취를 위한 갈등,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사건들과의 모순점들을 퍼즐 맞추듯 이어간다. 식민지 조선 청년이 품었던 내면의 문제가 무엇인지, 음악인 안익태를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제시한다. 독일 현지의 꼼꼼한 취재와 객관적 분석 시도 등이 돋보인다. **한글**

송보경 기자

## 메시아, 모차르트

《모차르트》(전4권)

크리스티앙 자크 지음 | 성귀수 옮김 | 문학동네 | 각권 476쪽, 472쪽, 472쪽, 456쪽 | 각권 값 10,500원

《람세스》의 작가 크리스티앙

자크의 신작소설이 출간되었다. 이번에는 인류 역사상 위대한 천재이자 음악가로 꼽히는 모차르트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이다. 언뜻 ‘이집트



전문가'인 저자가 바로크 시대 음악가의 생을 복원했다는 것이 이상하기도 하지만 그가 그려낸 모차르트는 천재 음악가를 뛰어넘은 이집트 비전의 계승자이자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적 존재이다.

특히 저자는 프리메이슨으로서의 모차르트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 모차르트가 창조해낸 음악의 근원과 신비를 밝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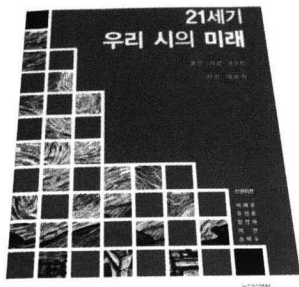
혁명기 유럽에서 활동하던 신비주의적 비밀 결사체 프리메이슨단과 고대 이집트의 이시스와 오시리스 비전을 결합한 작가의 독창적 시도가 돋보이고, 특히 아직까지 미스터리로 남아 있는 모차르트의 사인을 분석한 추리도 흥미진진하다.

## ‘젊은 시인’ 49인의 자선 대표작 모음집

《21세기 우리 시의 미래》

고영 외 지음 | 실천문학사 | 304쪽 | 값 10,000원

등단 10년 미만의 ‘젊은 시인’ 49인의 자선 대표작 모음집이다. 이재무, 이안, 손택수 시인과 유성호, 엄경희 문학평론가가 선정위원으로 참여했다. 선정위원은 머리말을 통해 “여기서 ‘젊은’ 이라 함은, 시인들의 실제 연배가 아니라 시단에 나와서 자기



목소리를 발화한 연조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시단의 특정 경향에 치중한 것이 아니라 최근 시단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냈다는 점이 눈에 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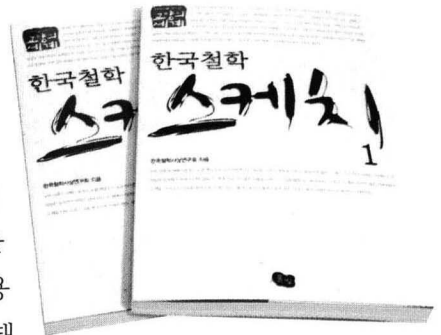
서정적 발화에 강한 윤성학이나 고영민 등의 시와 새로운 언어와 발상으로 시적 문법을 새롭게 쓰고 있는 김언, 최치언 등의 시, 사람살이의 구체성에 주목하는 유희준, 박후기 등의 시를 모두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 반갑다. 정성껏 차린 구첩 반상을 대접받는 기분이 드는 시집이다.


## 한국 철학에 대한 열린, 주체적 시각

《한국 철학 스케치》(전2권)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지음 | 풀빛 | 각권 243쪽, 218쪽 | 각권 값 10,800원

한국 철학의 흐름을 쉽고 흥미있게 풀어내 좋은 반응을 얻었던 《이야기 한국 철학》이 출간된 지 10년을 맞아 현대적인 내용과 구성으로 다시 태



어났다. 기왕의 내용과 의도는 그대로 살리면서 그간의 문제점을 보완해 한국 철학의 전체적인 흐름과 각 시대를 반영하는 주요 쟁점과 내용을 충실하게 정리했다. 《이야기 한국 철학》이 여러 명의 학자가 썼기 때문에 내용상 중복되거나 서술방식의 차이로 인해 독자들에게 혼란을 주었다면 이 책은 두 명의 필자가 글을 재정리하여 일관성과 통일성을 갖추었고, <도표로 보는 한국 철학의 흐름>과 <한국 철학 여행의 길잡이>를 실어 한국 철학 사상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한국 철학에 대한 열린 시각과 주체적 시각을 성찰할 수 있는 유의미한 책이다. 

이주연 기자